

면앙정가 내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无等山 훈 활기 뫼히 동다히로 버더 이서
멀리 세쳐 와 霽月峯이 되어거늘
無邊大野의 모습 ㉠ 짐작 호노라
닐곱 구비 흠뻑 움쳐 뜨득뜨득 버렸는 듯.
[A] 가온디 구비는 굵고 든 늘근 농이
선즙을 굿 씨야 ㉡ 머리를 안쳐시니
너르바회 우히 松竹을 해하고
亭子를 안쳐시니 구름 툇 청학이
千里를 가리라 두 노래 버렸는 듯.

玉泉山 龍泉山 님린 물히
亭子 압 너븐 들히 울울히 퍼진 드시
넙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마나
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김을 치엿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 빈앗바
듯는 듯 짜르는 듯 밤노즈로 흐르는 듯.
므조친 沙汀은 눈긏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님리락 모드락 흐트락
蘆花를 스이 두고 우리곰 좇니는고.
너븐 길 밧기오 긴 하늘 아리
두르고 쏘즌 거슨 뫼힌가 ㉣ 屏風인가 그림가 아난가.
노픈 듯 님즌 듯 굵는 듯 님는 듯
숨거니 뫼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온디 일흠 님 양하야
하늘도 젓치 아녀 웃독이 섰는 거시
秋月山 머리 짓고
龍龜山 夢仙山 佛臺山
魚登山 湧珍山 錦城山이
虛空에 버러거든
遠近蒼崖의 머문 것도 하도 할샤.
흰구름 브흰 煙霞 프로니는 山嵐이라.
千巖萬壑을 제 집으로 사마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 지고.
오르거니 님리거니 長空의 떠나거니
廣野로 거너거니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지트락
斜陽과 섰거 디어 細雨조차 뿌리는다.
籃輿를 비야 툇고 술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호는 적의 綠楊의 우는
嬌態 겨워 호는고야.

黃鶯

나모 새 즈자지어 ㉤ 樹陰이 얼윈 적의
百尺欄干的 긴 조으름 내여 퍼니
水面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즌 서리 빠딘 후의 산 빗치 금슈로다.
黃雲은 쏘 엇디 萬頃의 편 거기요.
漁笛도 흥을 계워 들을 썩봐 브니는다.
草木 다 진 후의 江山이 미물커늘
㉥ 造物리 현스 호야 氷雪로 꾸며 내니
㉦ 瓊宮瑤臺와 玉海銀山이
眼低의 버러세라.
乾坤도 가음열사 간 디마다 경이로다.

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이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복름도 혀려 호고 돌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란 뉘 다드며 딴 곳츠란 뉘 쓸려노.
[B] 아춤이 ㉧ 낮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나.
오늘리 不足커니 來日리라 有餘하라.
이 뫼히 안자 보고 더 뫼히 거러 보니
煩勞호 므옴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실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야.
다만 호 靑藜杖이 다 므드어 가노미라.
술리 님엇거니 뫼지라 업슬소나.
블리며 툇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츠락
을프락 프람호락 ㉨ 노혜로 소기니
天地도 넘고넘고 日月도 훈가호다.
羲皇을 모를러니 이적이야 기로고야
神仙이 엇터턴지 이 몸이야 기로고야.
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
岳陽樓上의 李太白이 사라 오다
浩蕩情懷야 이에서 더 흘소나.
이 몸이 이렇 굶도 ㉩ 亦君恩이샷다.

01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무등산의 줄기가 제월봉이 된 형세에 담긴 의도를 헤아려 보고 있다.
- ② ㉡: 시냇물이 쉽 없이 흐르는 역동적인 모습을 바쁜 일상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 겨울 산의 설경을 빚어낸 조물주의 솜씨가 매우 야단스럽고 화려함을 나타낸다.
- ④ ㉣: 아침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자연을 즐기는 일과가 뻘뻘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속세에서 겪었던 억울한 분노를 술과 노래를 통해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02

윗글의 공간적 배경과 경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월봉은 무등산의 한 줄기가 뻗어 나와 형성된 봉우리로 묘사되고 있다.
- ② 식영정 앞의 시냇물은 마치 쌍룡이 몸을 뒤틀는 듯한 역동적 형상을 띤다.
- ③ 식영정 주변의 산들은 병풍을 둘러친 듯한 모습으로 허공에 펼쳐져 있다.
- ④ 석양 속에서 내리는 가랑비는 산의 색채를 더욱 짙고 푸르게 변화시킨다.
- ⑤ 겨울의 성산은 조물주가 옥해와 은산으로 꾸며 놓은 듯한 신비로움을 준다.

03

[A]와 [B]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연물의 형세에 주목하여 정적인 미감을, [B]는 인간의 활동에 주목하여 동적인 활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A]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이상향 건설을, [B]는 세속적 의무에서 벗어난 개인적 고립의 즐거움을 드러낸다.
- ③ [A]는 공간의 형성과정을 통해 장소의 신성함을, [B]는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자연에 대한 화자의 권태를 보여준다.
- ④ [A]는 거시적 관점에서 산천의 형세를 관조하고 있으며, [B]는 미시적 관점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화자의 분주함을 서술한다.
- ⑤ [A]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의지를, [B]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무위자연을 실천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04

윗글에서 화자가 언급한 '겨울 엷다'의 의미를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속세의 번잡한 업무가 산속까지 이어져 내면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 ②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즐겨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 느끼는 행복한 분주함이다.
- ③ 육체적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은거 생활의 고단함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자가 기울이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의 명예를 잊지 못해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를 가리킨다.

0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제월봉의 형세를 잡에서 깬 용의 머리에 비유하여 산의 기운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첩첩이 쌓인 산들의 모습을 병풍에 빚대어 자연의 장엄한 풍경을 시각적으로 부각한다.
- ③ ㉢: 여름날 무성한 나뭇잎이 만들어낸 그늘을 통해 계절적 배경과 시원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 눈 덮인 산의 경치를 화려한 궁궐에 비유하여 겨울 풍경의 고귀함과 신비로움을 예찬한다.
- ⑤ ㉤: 자연을 즐기는 모든 삶의 근거가 임금의 은혜임을 강조하며 유교적 충의 사상을 부정하고 있다.

06

윗글의 '黃雲'과 '黃鶯'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黃雲'은 전란의 불길일, '黃鶯'은 평화를 갈구하는 백성의 목소리를 상징한다.
- ② '黃雲'은 가을 들판의 익은 곡식을, '黃鶯'은 여름날의 흥겨운 분위기를 돋우는 매개체이다.
- ③ '黃雲'은 화자의 우국충정일, '黃鶯'은 화자의 고독을 심화시키는 자연물로 기능한다.
- ④ '黃雲'은 세속의 부귀영화를, '黃鶯'은 그것을 비웃는 화자의 냉소적 태도를 대변한다.
- ⑤ '黃雲'과 '黃鶯'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도덕적 순결함과 고결한 인품을 형상화한 것이다.

0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성산의 식영정을 배경으로 그곳의 주인인 김성원의 풍류와 성산의 사계절 경치를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는 김성원의 삶을 '신선'에 비유하며 찬양하는 동시에, 자신 또한 그 풍류에 동참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준다. 특히 마지막에 언급된 '이태백'과의 비교는 화자가 느끼는 자부심이 단순히 개인적 만족을 넘어 문학적 전통 속의 최고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탈속적 세계관 안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의라는 유교적 가치가 거저에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① 화자가 스스로를 '신선'이라 여기는 것은 김성원의 고결한 삶에 자신을 투영하여 탈속적 자아를 확립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겠군.
- ② '이태백이 사라 오다 / 浩蕩情懷야 이에서 더 홀소냐'라고 한 것은 당대 최고의 시인보다 자신의 풍류가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겠군.
- ③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울 없다'는 진술은 속세의 번뇌를 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 수행자의 고충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瓊宮瑤臺'와 '玉海銀山' 같은 화려한 비유를 통해 성산의 경치를 천상계의 모습으로 격상시켜 예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⑤ 작품의 끝에서 '亦君恩'을 언급한 것은 자연에서의 즐거움이 궁극적으로 국가적 안정과 임금의 치세 덕분이라는 사대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08

윗글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연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그 속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려 한다.
- ② 세속적 가치보다 자연과 함께하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우선 시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처지를 고대의 이상적인 태평성대인 회황 시절에 비유하며 만족해한다.
- ④ 자연의 아름다움을 혼자만 간직하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차단한다.
- ⑤ 풍류를 즐기는 과정에서도 근본적인 유교적 충의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 한다.

0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성산의 겨울 경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목이 모두 시든 후에야 비로소 조물주의 새로운 장식이 시작된다.
- ② 눈과 얼음으로 꾸며진 세상은 마치 옥으로 만든 궁궐처럼 화려하다.
- ③ 화자는 눈앞에 펼쳐진 설경을 보며 천지가 풍요롭다고 느끼고 있다.
- ④ 겨울 산의 경치는 화자가 어디를 가든 경이로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 ⑤ 산속의 추위가 너무 심해 화자는 풍류를 멈추고 실내에 머물며 봄을 기다린다.

10

윗글의 공간적 구성과 화자의 시선 이동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식영정이라는 고정된 장소에서 먼 산의 풍경을 끌어당겨 보는 원근법적 시선이 주를 이룬다.
- ② 무등산에서 시작된 시선이 성산의 사계절을 거쳐 다시 무등산으로 돌아오는 순환적 구조를 띤다.
- ③ 정자 주변의 근경(시냇물, 모래사장)에서 시작하여 원경(먼 산들)으로 시야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 ④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다보는 부감법을 사용하여 성산 전체의 지형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보고한다.
- ⑤ 실내 공간의 아늑함과 실외 공간의 광활함을 대비시켜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11

윗글의 마지막 구절 '이 몸이 이렇 궁도 亦君恩이샀다'에 담긴 화자의 인식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에서의 삶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임금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며 원망을 드러낸다.
- ② 신선과 같은 고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력의 비호가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 ③ 개인의 안락한 삶이 공동체의 평화와 직결된다는 근대적인 시민 의식을 보여준다.
- ④ 자연을 즐기는 사적인 풍류의 영역조차 공적인 충의의 가치 체계 안으로 수렴시키고 있다.
- ⑤ 임금의 은혜가 사라지면 자연의 아름다움 또한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는 허무주의적 태도이다.

12

밑줄 친 ㉠ '낯브거니'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성격이 못된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 ② 기상 조건이 협약하여 비행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었다.
- ③ 살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 ④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당분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 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을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가 문제다.

13

윗글의 '黃鸝(피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녹음이 우거진 버드나무 사이에서 울며 화자의 시선을 끈다.
- ② 아양을 떠는 듯한 울음소리로 여름날의 흥취를 고조시킨다.
- ③ 화자가 가마를 타고 굽은 길을 지나갈 때 그 존재가 부각된다.
- ④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전령으로 묘사된다.
- ⑤ 자연의 생명력을 드러내며 화자와 정서적 교감을 이루는 대상이다.

14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화자는 성산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감상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바쁨'은 역설적으로 화자가 세속의 (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연과 (나)의 상태에 도달했음을 증명한다. 결국 화자에게 자연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가치관이 투영된 (다)의 공간인 것이다.

- ① 가: 명예욕 - 나: 대립 - 다: 투쟁
- ② 가: 번뇌 - 나: 합일 - 다: 심득(心得)
- ③ 가: 의무 - 나: 단절 - 다: 도피
- ④ 가: 유희 - 나: 소통 - 다: 관찰
- ⑤ 가: 관계 - 나: 경쟁 - 다: 정복

15

〈보기〉는 윗글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과 유사한 태도를 보인 다른 시조이다. 두 작품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 내니
나 훈 칸 돌 훈 칸 청풍 훈 칸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디 없으니 돌려 두고 보리라
- 송준, 「십 년을 경영하여」

- ① 윗글의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와 〈보기〉의 '돌려 두고 보리라'는 모두 자연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 ② 윗글의 '亦君恩'과 〈보기〉의 '청풍 한 칸 맡겨 두고'는 모두 자연의 소유권이 임금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③ 윗글과 〈보기〉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거나(달, 청풍) 친근한 대상으로 설정하여 몰아일체의 경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윗글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다채로운 경치를, 〈보기〉는 좁은 공간(초려삼간)에 자연을 압축적으로 수용하는 미학을 보여준다.
- ⑤ 두 작품의 화자 모두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사대부의 전형적인 풍류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면양정가 내신 문제지 · 정답 및 해설

01 어휘의 문맥적 의미

개념운동

정답: ⑤ ㉔: 속세에서 겪었던 억울한 분노를 술과 노래를 통해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출제의도]

고전 시가에 사용된 핵심 어휘의 문맥적 의미와 화자의 정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⑤ ㉔ '노해'는 '늙은이의 회포' 또는 '노인의 흥겨운 마음'을 의미한다. 이는 술에 취해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누리는 화자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지, 속세의 억울한 분노를 해소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㉑ '짐작'은 '짐작'의 고어로, 제월봉의 형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추측하는 문맥에 부합한다.
 ② ㉒ '비얏바'는 '바빠서'라는 뜻으로, 밤낮으로 흐르는 시냇물의 활기찬 움직임을 의인화하여 묘사하고 있다.
 ③ ㉓ '현스흐야'는 '야단스럽다'는 뜻으로, 조물주가 온 세상을 눈으로 꾸민 화려한 경치를 예찬하는 표현이다.
 ④ ㉔ '낫브거니'는 '부족하거니'라는 뜻으로, 볼 것이 너무 많아 시간이 모자란 화자의 풍류적 분주함을 강조한다.

02 내용의 정밀한 이해

조건누락

정답: ④ 석양 속에서 내리는 가랑비는 산의 색채를 더욱 짙고 푸르게 변화시킨다.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계절별 경관 묘사와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대조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④ 지문에서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지트락 / 斜陽과 섯거 디어 細雨조차 뿌리는다'는 부분은 석양과 가랑비가 어우러져 산의 색채가 다채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를 단순히 '더욱 짙고 푸르게'만 변화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텍스트의 '프르락 블그락'과 같은 다채로운 색채 묘사를 간과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첫 문단에서 무등산 줄기가 뻗어 제월봉이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雙龍이 뒤통스 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냇물의 굽이치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③ '되헛가 屏風인가'와 '虛空에 버러거든'을 통해 산들의 배치를 설명하고 있다.
 ⑤ '氷雪로 꾸며 내니'와 '玉海銀山'을 통해 겨울 설경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03 구간 통합 및 비교

인과역전

정답: ④ [A]는 거시적 관점에서 산천의 형세를 관조하고 있으며, [B]는 미시적 관점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화자의 분주함을 서술한다.

[출제의도]

지문의 서로 다른 두 구간에서 나타나는 시선과 서술 방식의 차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④ [A]는 무등산에서 제월봉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줄기의 흐름을 '늘근 농'이나 '청학'에 비유하며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반면 [B]는 바람, 달, 낚시, 꽃 쓸기 등 자연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수행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화자의 미시적이고 체험적인 일상을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A] 역시 '늘근 농이 선잠을 꺾 썬야'와 같은 역동적 비유를 사용하므로 정적인 미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② [B]의 화자는 자연과 몰아일체되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지, 고립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고립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③ [B]에서 화자는 '버릴 일이 아조 엽다'고 하며 자연을 즐기느라 바쁘다고 했으므로, '권태'를 느낀다는 설명은 정반대의 해석이다.
 ⑤ [A]의 화자는 자연의 형세를 예찬할 뿐 정복하려 하지 않으며, [B]의 분주함은 무위자연(아무것도 하지 않음)과는 다른 적극적 풍류이다.

04 개념의 정밀 분석

개념운동

정답: ②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즐겨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 느끼는 행복한 분주함이다.

[출제의도]

'겨를 엽다'라는 표현이 지닌 문맥적 함의와 화자의 가치관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화자는 '이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라며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모두 향유하고 싶어 한다. 여기서의 '겨를 없음'은 부정적인 바쁨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것을 온전히 누리려는 화자의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人間을 썬나와도'라고 하여 속세와의 단절을 명시했으므로 속세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③ 화자의 활동(바람 쐬기, 달 맞기 등)은 생계형 노동이 아닌 풍류적 행위이다.
 ④ 화자는 자연을 감상하고 수용하는 주체이지, 자연을 인위적으로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로 묘사되지 않는다.
 ⑤ '煩勞'는 무명의 버릴 일이 아조 엽다'는 구절은 자연 감상에 몰입한 상태를 의미하며 세속적 미련과는 무관하다.

05 표현상 특징과 효과

인과역전

정답: ⑤ ⑥: 자연을 즐기는 모든 삶의 근거가 임금의 은혜임을 강조하며 유교적 충의 사상을 부정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의 주요 표현 기법이 화자의 사상 및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⑥ '亦君恩이샀다'는 '또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라는 뜻으로, 강호에서 누리는 풍류조차 임금의 덕택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태도이다. 이는 유교적 충의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하고 공고히 하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늘근 뉘'이 머리를 엮었다는 표현은 산세의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② 산을 병풍이나 그림에 비유하는 것은 고전 시가에서 흔히 쓰이는 시각적 예찬 기법이다.
 ③ '樹陰이 얼린 적'은 여름의 전형적인 풍경을 묘사하여 계절감을 드러낸다.
 ④ '瓊宮瑤臺'는 옥으로 만든 궁궐이라는 뜻으로, 설경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비유이다.

06 소재의 상징적 의미

개념혼동

정답: ② '黃雲'은 가을 들판의 익은 곡식을, '黃鶯'은 여름날의 흥겨운 분위기를 돋우는 매개체이다.

[출제의도]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의 계절적 배경과 문맥적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② '黃雲'은 가을철 만경들판에 펼쳐진 누런 벼 이삭을 구름에 비유한 것이며, '黃鶯(피꼬리)'은 여름날 녹음 사이에서 아양을 떨며 화자의 흥을 돋우는 존재이다. 두 소재 모두 자연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상징한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자연 예찬이 주된 내용이며 전란이나 백성의 고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黃鶯'은 '嬌態 겨워 호는고야'라고 하여 화자의 흥을 돋우는 존재이지 고독을 심화시키지 않는다.
 ④ 화자는 자연 속의 삶을 긍정하고 있으며, 이 소재들을 통해 세속을 비웃는 냉소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⑤ 도덕적 순결함보다는 자연의 경관과 그로 인한 풍류적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07 [보기] 종합 감상

맥락이탈

정답: ③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울 없다'는 진술은 속세의 번뇌를 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 수행자의 고충을 드러낸 것이겠군.

[출제의도]

비평적 관점을 제시한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의 세부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③ '겨울 없다'는 것은 앞서 분석했듯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느라 바쁘다는 풍류적 표현이다. 이를 속세의 번뇌를 잊기 위한 '수행자의 고충'으로 해석하는 것은 작품의 전체적인 낙천적 분위기 및 <보기>에서 언급한 '풍류'와 '물아일체'의 관점에 어긋난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김성원을 신선에 비유했다고 했으며, 화자 역시 그와 어울리며 신선 같은 삶을 지향한다.
 ② 이태백보다 자신의 호탕한 정회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서리적 표현은 강한 자부심을 나타낸다.
 ④ 화려한 미사여구는 성산을 이상향으로 묘사하려는 의도와 부합한다.
 ⑤ <보기>에서 언급한 유교적 가치의 기저와 '亦君恩'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08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부분→전체

정답: ④ 자연의 아름다움을 혼자만 간직하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차단한다.

[출제의도]

작품 전반에 나타난 화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④ 화자는 '설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야'라고 하여, 너무 바빠서 남에게 이 좋은 길을 전할 틈도 없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이 너무 좋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지, 의도적으로 타인과의 소통을 거부하거나 정보를 독점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사계절의 변화를 금수, 황운, 빙설 등으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② 술과 노래, 자연 감상을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③ '羲皇을 모롤러니 이적이야 괴로고야'에서 현재의 삶에 대한 극도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⑤ 마지막 구절 '亦君恩'을 통해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09 상황의 세부 조건 파악

D2

정답: ⑤ 산속의 추위가 너무 심해 화자는 풍류를 멈추고 실내에 머물며 봄을 기다린다.

[출제의도]

특정 계절(겨울)을 다룬 단락의 세부 정보와 화자의 대응 방식을 정확히 추출한다.

[정답 풀이]

- ⑤ 지문에서 겨울은 '瓊宮瑤臺'와 '玉海銀山'으로 묘사되며 화자는 이를 '경이로다'라고 예찬한다. 또한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울 없다'며 겨울에도 여전히 자연을 즐기느라 바쁘다고 했으므로, 추위 때문에 풍류를 멈췄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오답 풀이]

- ① '草木 다 진 후의 ... 氷雪로 꾸며 내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瓊宮瑤臺'는 옥으로 된 궁궐을 의미하며 설경을 비유한 것이다.
- ③ '乾坤도 가옉열사'에서 '가옉열사'는 풍요롭다는 뜻으로, 설경의 장엄함을 표현한다.
- ④ '간 디마다 경이로다'라고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10 공간과 시선의 이동

부분→전체

정답: ③ 정자 주변의 근경(시냇물, 모래사장)에서 시작하여 원경(먼 산들)로 시야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의 전개에 따른 화자의 시선 이동 경로와 공간 배치 원리를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지문 초반부에서 식영정 앞의 '너른 들', '물히', '沙汀' 등 정자 근처의 풍경을 묘사한 뒤, '두르고 쏘곤 거슨 뵈힌가'라며 시선을 멀리 돌려 '秋月山', '龍龜山' 등 주변의 여러 산봉우리(원경)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정자에만 머물지 않고 '이 뵈히 안자 보고 더 뵈히 거러 보니'라고 하여 직접 이동하며 감상한다.
- ② 시선이 무등산으로 다시 돌아와 마무리되는 순환적 구조는 지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④ 화자의 시선은 주관적 예찬과 비유로 가득 차 있으며, 객관적 보고와는 거리가 멀다.
- ⑤ 실내외의 대비나 그로 인한 내면적 갈등은 이 작품의 주제 의식과 맞지 않는다.

11 개념의 정밀 분석

개념운동

정답: ④ 자연을 즐기는 사적인 풍류의 영역조차 공적인 충의 가치 체계 안으로 수렴시키고 있다.

[출제의도]

사대부 가사의 전형적인 결구인 '역군은'의 사상적 배경과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④ 화자는 강호에서 신선처럼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사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그 근원이 임금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한다. 이는 개인의 풍류적 삶을 유교적 사대부로서의 공적 가치(충)와 결합하여 정당화하고 완성하는 논리이다.

[오답 풀이]

- ① '역군은'은 관습적인 예찬 표현이며 원망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② 권력의 비호를 '필수적'이라고 역설하는 정치적 논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 ③ 근대적 시민 의식과는 시대적, 사상적 배경이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자연의 의미가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임금으로 설정한 것이다.

12 어휘의 문맥적 의미

유사어혼동

정답: ③ 살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출제의도]

고어 '넉브다'가 현대어 '나쁘다'와 달리 '부족하다'는 의미로 쓰였음을 문맥을 통해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 용례를 찾는다.

[정답 풀이]

- ③ 지문의 '아침이 닷브거니'는 아침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 ③ 번의 '넉넉하지 못해' 역시 수량이나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오답 풀이]

- ① '못된'은 성질이나 품성이 좋지 않음을 뜻한다.
- ② '험악하여'는 상태가 거칠고 나쁨을 뜻한다.
- ④ '악화되어'는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짐을 뜻한다.
- ⑤ '지탄받을'은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나쁜 행동을 뜻한다.

13 세부 정보의 한정적 이해

맥락이탈

정답: ④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전령으로 묘사된다.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소재의 구체적인 묘사와 화자의 정서적 반응을 정확히 대조한다.

[정답 풀이]

- ④ 지문에서 피꼬리는 '嬌態 겨워 흥고야'라고 하여 즐거운 흥취를 돋우는 존재일 뿐,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준다고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전령'이라는 식의 묘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綠楊의 우는 黃鶯'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嬌態 겨워'라는 표현이 아양을 떠는 듯한 흥겨움을 나타낸다.
- ③ '籃輿(가마)를 비야 타고 ... 오며 가며 흥논 적의'라는 배경 설명과 일치한다.
- ⑤ 화자의 풍류적 일상 속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연물이자이다.

14 논리적 인과 및 통합

개념운동

정답: ② 가: 번뇌 - 나: 합일 - 다: 심득(心得)

[출제의도]

작품의 핵심 주제와 화자의 내면 세계를 추상적 개념어를 통해 통합적으로 정리한다.

[정답 풀이]

- ② 화자는 '煩惱 ㅁ ㅁ(번뇌)'을 버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물아일체(합일)'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심득(마음으로 얻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대립'과 '투쟁'은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와 정반대된다.
- ③ '단절'은 자연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며, '도피'는 화자의 적극적인 예찬 태도를 담아내지 못한다.
- ④ '유희'는 맞을 수 있으나 '관찰'은 화자의 몰입(몰아일체)을 설명하기엔 너무 객관적인 단어이다.
- ⑤ '경쟁'과 '정복'은 서구적 자연관에 가까우며 본문의 동양적 풍류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15 [보기] 적용 및 비판

조건누락

정답: ② 윗글의 '亦君恩'과 <보기>의 '청풍 한 칸 맡겨 두고'는 모두 자연의 소유권이 임금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출제의도]

유사한 주제를 다룬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표현상의 차이와 사상적 공통점을 정밀하게 변별한다.

[정답 풀이]

- ② 윗글의 '亦君恩'은 자연 속 삶의 근원을 임금에게 돌리는 표현이지만, <보기>의 '청풍 한 칸 맡겨 두고'는 자연을 집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몰아일체의 표현일 뿐 임금의 소유권을 명시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두 화자 모두 자연을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으로 깊이 끌어들이고 있다.
- ③ 윗글의 '늘근 농', '황앵' 등과 <보기>의 '달', '청풍'은 모두 화자와 교감하는 대상이다.
- ④ 윗글은 성산의 광활한 사계절을, <보기>는 작은 초가집을 배경으로 하여 공간적 규모의 차이를 보인다.
- ⑤ 두 작품 모두 강호가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